

우리 차 생활화 · 세계화에 앞장



제다 명인을 찾아서

김동곤 하동 쌍계제다 대표

본지는 지난 2주에 걸쳐 농림부가 지정한 '전통식품 명인' 신광수 명인(제18호 야생작살차, 순천 명도다원)과 박수근 명인(제16호 수제녹차, 하동 명인다원)을 만났다. 이번 호에서는 올해 2월 명인에 선정된 김동곤 대표(제28호 우전차, 하동 쌍계제다)를 만나 우리 차 문화에 대한 견해를 들어봤다.



제다인으로, 차문화 연구가로 30여 년간 하동 차문화를 지켜온 김동곤 쌍계제다 대표. "우리 차문화는 생활차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한다. 사진제공=쌍계제다

쌍계제다 김동곤(58) 대표. 그는 최근 몇 년간 차계에서 '가장 상복(賞福) 많은 사람'으로 꼽힌다.

2001년 국제적인 차 품평대회인 제3회 국제차품평대회에서 은상을, 이듬해 제4회 대회에서는 금상을 수상했다. 2004년에는 '한국 전통식품 Best5 선발대회' 다류 부문에 선정, '전통식품 품질인증' 획득, 제1회 대한민국 차품평회 10대 명차 선정이라는 경사가 줄을 이었다. 지난해에는 농식품부가 공익 육성 공로를 인정받아 대통령상을 수상했고 결국 올해 2월에는 명인에 지정됐다.

립하고 본격적으로 제다업에 뛰어 들었다. 쌍계사 금송 스님과 덕룡 스님에게 차를 배웠고, 불가의 다법(茶法)도 익혔다. 1980년대 초 처음으로 우전차를 상품으로 만들어 내었고, 지역에 '녹산다인회'를 설립하기도 했다.

현재는 롯데 신세계 현대 등 17곳의 백화점과 미국 뉴욕 '그린티 하우스' 직영점 등의 매장에서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중국 북경 차시장이 '마련도'와 캐나다 토론토 등지에도 매장을 열 예정이다.

김 대표는 그간 '제다인'으로서 뿐만 아니라 '차 문화 연구가'로서

와 문화를 제대로 알아야 한다는 뜻에서다.

"차에 대한 대중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차와 관련된 논란도 날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동의 차 시배지비는 찢겨 돼야 한다'는 식의 지역이기주의는 타파해야 할 것입니다."

"김대표공의 성씨가 대씨(大氏)란 주장에 대해서도 그는 <동사강목>에 적힌 '김대렴'이란 구절을 발견하고, 이를 발표해 논란을 매듭짓기도 했다.

"최근 차 학파도 속속 개설되고 차인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곤 하지만, 정작 알차의 소비량은 예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차를 가르친다는 곳에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이 한복과 다기 사는 일이니, 차를 제대로 알고 차맛을 느끼기는 요원할 밖에도 이제 우리 차문화도 '생활차' 문화로 거듭나야 합니다."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행다(行茶) 문화'가 아니라 '일상다반사(日常茶飯事)'가 되어야 함을 강조하는 말이다.

"처음 차를 만들기 시작하면서 품었던 '세계 최고의 차를 만들겠다'는 목표는 아직도 유효하다"는 김 대표. 7000여 평의 차밭과 산산 3만여 평 이곳저곳에 자라고 있는 야생차를 가꾸고 전통 제다법을 이어가는 그의 모습에서 우리 차가 나아갈 방향을 다시 한 번 생각해보게 된다. 하동=여수형 기자

쌍계사 금송·덕룡 스님에게 제다법 배워 美, 뉴욕에 매장... 中·加도 준비 중 지역 공무원들에 차문화 강의

"명인 지정으로 쌍계사를 중심으로 이어져 온 전통 제다법이 다시 한 번 인정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김 대표는 10대째 하동 화개골에 살고 있는 '지리산 토박이'다. 고조부에서 이어 한의사로 가업을 이었던 그의 선친 김 가문은 현재는 한약방을 운영하면서 쌍계사 스님들에게서 제다법을 익혔다. 아버지의 영향으로 어려서부터 차를 만들고 마시는데 관심을 가져온 김 대표는 1975년 쌍계제다를 설립

도 적지 않은 행보를 남겼다. <화개동의 향기> <하동 야생차> 등 차 관련 서적을 7권이나 펴냈고 쌍계제다 홈페이지(www.sktea.com)를 통해 차에 관련된 문헌과 자료, 관련 동영상 강좌 등을 제공하고 있다. 지난 8월부터는 지역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1년 과정의 차문화 강의를 시작했다. 최근 각 지자체별로 차를 지역 특산물로 키우기 위해 노력하는 현실에서 누구보다 공무원들이 먼저 하동 차의 역사



인류 문화속의 茶

11. 신비의 음료

◎ 카페인의 나라

맨해튼에 사는 어떤 교포가 딸과 함께 20년 만에 한국을 방문했다. 그녀는 한국의 문화, 특히 차 문화를 직접 체험하고 싶어했다. 그녀에 따르면 언제부터인가 미국의 상류층과 경제적 여유가 있는 한인들 사이에서 차를 마시는 풍토가 일어나고 있다고 한다. 무엇보다도 그녀는 자녀에게 바른 생각과 온화한 품성을 가르치고 싶어,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차를 마신다는 것이다.

18세기 초까지 차와 커피는 신대륙에서 인기 있는 음료였다. 영국의 동인도 회사가 차에 특별세를 부과하면서 식민지 사람들에게 강한 저항을 일으켰고, 영국산 제품은 무조건 배척하

배를 통해 무역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정치적 상황 속에서 차는 '비애국적 음료'로 인식되었으며, 커피는 대중 음료로 정착되었다.

이처럼 신대륙에서 차가 문화로 자리 잡기에는 약조건이었다. 개척자들과 함께 도착한 커피는 그들에게 활기를 주었고 보스턴과 뉴욕에 많은 커피하우스가 생기기 시작했다. 뉴욕의 '머천트 커피점'은 뉴욕 은행 설립 발기 장소와 증권 거래의 장소가 되었고 사업가들이 원활한 사업을 위해 '톤티 커피점'을 개업하는 등 미국인들은 커피를 마시며 '부'를 생각했다.

이렇게 카페인에 익숙해진 미국은 커피를 연구하여 군대에 이용하게 된다. 먹기 간편하고 장기간 보관 가능한 응축된 고체인 '칩스 커피'를 만들어 군인들에게 보급한 것

차조례로 동인도회사에 무역·소매 독점권 부여 신대륙은 독립과 함께 커피를 대중 음료로 정착

는 등 세금 납부를 거절하는 일도 있었다. 차는 네덜란드를 통해 밀수되었고 밀수된 차의 가격은 저렴한 인기가 있었다.

이것은 영국의 창고에 차가 가득 쌓이는 결과를 초래했고, 영국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1773년

'차조례(Tea Act)'를 만들어 시행, 차 무역과 소매에 대한 독점권을 동인도 회사에 부여한다. 영국의 이러한 조치는 밀수업자와 상인들에게 위기를 주었고 신문을 통해서 이러한 사실들이 알려지자 식민지 사람들은 동의하기 시작했다.

차를 실은 배가 보스턴 항에 도착했을 때 인디언 반작용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커피 역시 새로운 문화를 열게 된다. 캘리포니아 버클리에서 커피를 파는 '피츠 타엔 커피' 커피 전문점이 문을 열어 대성공을 한다. 이어서 보스턴의 '커피 커넥션', 플로리다의 '바니즈', 시애틀의 '스타벅스' 같은 커피점이 개업해 미국의 커피산업에 성장시켰다. 특히 세계 40여 개국에 진출한 미국의 다국적 기업 '스타벅스'는 커피의 새로운 신화를 탄생시켰다.

이것이 '칩스 커피'는 남북 전쟁이 끝난 뒤에 사라지지만, 계속된 연구로 가루 커피인 인스턴트커피를 생산하게 된다. 2차 세계 대전까지 125개 공장과 22곳 가정집에서 인스턴트커피를 생산했다.

이 때에 익숙해진 군인들은 집에 돌아간 후에도 계속 인스턴트커피를 선호하였고, 인스턴트커피 시장은 미국 커피 시장의 3분의 1을 차지했다. 이들은 커피의 품미보다는 간편하게 카페인을 섭취하는 것을 더욱 좋아했고 카페인에 취해있었다.

이러한 이들에게 음식의 지나친 가공에 대한 반작용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커피 역시 새로운 문화를 열게 된다. 캘리포니아 버클리에서 커피를 파는 '피츠 타엔 커피' 커피 전문점이 문을 열어 대성공을 한다. 이어서 보스턴의 '커피 커넥션', 플로리다의 '바니즈', 시애틀의 '스타벅스' 같은 커피점이 개업해 미국의 커피산업에 성장시켰다. 특히 세계 40여 개국에 진출한 미국의 다국적 기업 '스타벅스'는 커피의 새로운 신화를 탄생시켰다.



배에 실려 있던 차를 보스턴 항구에 던지는 광경

대통령 추석 선물, 9道 차 결정

"차 능가 위로·격려 위해"



노무현 대통령의 올해 추석 선물이 '전국 9도(道) 전통 차세트'로 결정됐다.

차는 경기의 백련잎차(서일농원), 강원도의 메밀차(오대산식품), 충북의 허브차(상수허브), 충남의 구기자차(청양구기자농협), 전북의 하소백련차(영농법인 하소백련), 전남의 보성녹차(보성녹차 영농법인), 경북의 안동국화차(안동국화차 영농법인), 경남의 하동녹차(하동녹차 발전협의회), 제주의 오가피차(한라산삼초오가피 영농법인)로 구성됐다. 청와대는 "추석 선물을 각 지방을 대표하

는 차로 결정된 것은 우리 차를 널리 알릴 어려움을 안고 있는 생산 농가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차 선물세트의 개당 가격은 배송비 포함 6만 5000원.

차 선물세트는 전직 대통령과 전·현직 5 부요인, 국회의원, 장·차관, 종교계·시민단체 등 주요 인사를 비롯해 소년소녀가장, 집중호우 사상자, 정신대 할머니, 서해교전 사상자 등 5000여 명에게 보내졌다.

한편 청와대는 소년소녀가장과 수재민들에게는 실생활에 필요한 물건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쌀 등의 생활필수품을 추가로 선물했다.

여수형 기자

보이차 전문점

진년보이·진년오롱·철관음·오롱차
대홍포·화차·인삼오롱·40여가지의 차

瑞榮普洱

조계사 건너편 TEL 02)722-0855
H.P 017-411-0882

청운 스님 진품 달마도

귀의 삼보 하시고 청운 스님께서 직접그리신 달마도는 오랜 정진을 통한 선(禪)기가 녹아 있습니다. 달마도는 인간의 근본 마음을 밝혀줌으로써 삶의 모든 어두운 불행의 기운을 사라지게 만들어 밝고 행복한 삶으로 바꿔줍니다. 청운스님의 영적 힘을 가진 진품 달마도를 소장하시고 소원성취도 이루십시오.

※ 달마도(그림)만 구매 가능합니다. 각 호수를 불러주세요. 10점이상 구매시 사찰명을 새겨 드립니다.

달마 3호-그림:30×40cm
달마 4호-그림:40×50cm
달마 6호-그림:35×45cm
달마 8호-그림:35×68cm
달마 10호-그림:45×75cm

● 구입문의 : 불교용품 전문기획 달마 SHOP 051)851-5535
입금계좌 : 농협 949-02-315451(정정애)

茶道 달마도 과일호를 판매합니다

좋은 책, 향기로운 삶 월간 茶道 달마도 과일호를 판매합니다 문의전화 | 02)722-7777
과일호의 권당 가격은 5,000원